

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	
보도 일시	2022.7.21.(목) 조간 2022.7.20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7. 21.(목) 06:00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 장 허만욱 (044-200-5710)
		담당자	사무관 소현수 (044-200-5725)

청해부대, 그대들이 있어 우리 수출길이 안전합니다.

- 해양수산부와 수출입물류업계, 청해부대 초청 감사의 밤 행사 개최(7.21.(목)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대한민국 해군(참모총장 이종호), 해운협회(회장 정태순), 무역협회(회장 구자열), 그리고 해양산업 총연합회(회장 최윤희)와 함께 7월 21일(목) 18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‘청해부대 초청 감사의 밤 행사’를 개최한다.

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는 2009년 창설된 이래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 정기적으로 파병되어 해적 퇴치 및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. 소말리아 해역은 유럽의 관문인 수에즈 운하와 인접해 있어 해상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.

특히, 청해부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발된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고,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인해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선박들을 보호해 유럽으로 향하는 우리 수출입 화물을 제때 운송할 수 있게 해왔다.

이에 해양수산부와 수출입물류업계는 청해부대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‘청해부대 초청 감사의 밤 행사’를 개최하게 되었다. 이번 행사에는 전·현직 청해부대원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,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, 한기호 의원, 최재형 의원, 민홍철 의원, 윤재갑 의원, 정태순 해운협회장, 구자열 무역협회 부회장 및 최윤희 해양산업 총연합회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.

이번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묵념을 시작으로, 청해부대의 노고에 대한 해운물류업계 및 수출입업계의 감사인사에 이어 청해부대의 주요

공적 영상을 다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갖는다. 마지막에는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만찬도 진행될 예정이다.

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“청해부대원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해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.”라며, “해양수산부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체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

□ 선박 운항 사진(HMM 제공)



□ 청해부대 사진(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제공)

